

## 광주, 코로나 확산세 지속...3단계 격상될까

확진자 이틀 연속 두자리 수  
감염원 지역 곳곳으로 번져  
조용한 전파 불안감도 확산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감염원도 재래 시장에 이어 사우나 등 지역 내 곳곳으로 침투하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 현 2.5단계로 유지할 지, 3단계로 상향 조정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 443~452번까지 확진자 10명이 추가됐다. 성림침례교회 1명, 석정사우나(여탕) 2명, 말바우시시장 내 밥집 3명, 동광주 탁구 클럽 2명, 천안 171번 접촉자 1명, 감염원 미파악자 1명 등이다. 이들 중 4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확진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6명은 그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해온 탓에 추가 접촉에 따른 신규 확진자 발생 등이 우려된다. 특히, 누적 확진자



시장 방역 소독 8일 오전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광주북구보건소 방역반과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방역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다. 광주 누적 확진자 중 지난달 12일 이후 절반이 넘는 236명이 발생했다. 이 기간동안 상무지구 유흥주점(23명), 8·15 광화문 집회(22명), 성림침례교회(59명), 동광주 탁구클럽(17명), 시장 밥집(19명) 등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왔다. 또 학습지 회사, 청소 용역, 병원, 기원, 방문판매 관련 가게, 사우나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처럼 감염원이 다양해지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시

민의 비협조로 노력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확진자 감소는커녕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확진자 중 이동 동선을 거점으로 말하고 확진 검사를 거부하는가 하면, 증상이 있는데도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등 이웃과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사회에서 위기 때마다 나눔과 연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했던 '광주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위험지역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다 수많은 접촉자를 만들고 지역감염을 확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일상생활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흑산공항 건설·한전공대 설립 전남도 역점 사업들 탄력 받나

이낙연 대표 전남지사 때 추진 ... 사업 실현 기대감



흑산공항 조감도

민선 6기 전남지사를 역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에 오르면서 흑산공항 건설, 한전공대 설립사업 등 지지부진하던 전남의 역점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들 두 사업은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발탁되기 직전까지 민선 6기 전남지사로서 실행을 기어올려 추진했던 것으로,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남지사 출신 집권당 대표 등장으로 이들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전남 공약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 11번지 일원 54만7000㎡에 연장 1160m 폭 30m의 소형 공항을 짓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울릉공항과 함께 건설 논의가 시작됐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그러나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연거푸 3번이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개발이나, 보전이라는 해묵은 논란은 흑산도에서만 쟁점이 됐고 울릉도는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껴갔다. 애초 2017년 완공 계획이던 것이 2019년으로 늦춰졌다가 이제는 2023년 완공으로 밀려났다. 이 대표는 민선 6기 전남지사 시절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물론 기획재정부 각 실과를 찾아가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배려해달라는 열의를 보였다.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된 한전공대 설립 역시 이 대표가 전남지사 시절 그림을 그렸던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과정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민주당에 건의했고 결국 문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됐다. 문 대통령의 의지와 이 지

사의 초대 총리 발탁으로 정부 출범 초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으나 학교 법인 설립 지연 등 고비마다 잡음이 일었고 최근에는 대학 설립 인가 신청 전 법정 교사(校舍·학교건물) 확보가 어려워 특별법 제정으로 우회로 확보 없이는 정상 개교가 어렵다는 판단까지 내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부족, 한전의 의지 부족이 정상 개교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흑산공항 조기 건설, 한전공대 정상 개교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으나 전남지사 출신 집권당 대표 등장으로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긍정론이 제기된다. 176석 집권당 대표의 힘과 정치력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과제를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한전공대 정상 개교의 경우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풀 수 있고, 국립공원 위원회 일부 위원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한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이 대표 취임 후 당이 주도해 풀었던 의사 파업처럼 대안 제시를 통한 설득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 한전공대 설립 사업 모두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전남지사를 역임하며 정성을 쏟았던 현안들이라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군공항 이전 없이 민간공항 이전 안된다”

### “광주공항 조건 없는 이전 약속 실행하라”

##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뜨거운 공방

오는 2021년 광주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을 앞두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공방이 시작됐다.

군공항 이전 논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되면서 전남도의회가 반격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나광국(무안2·더불어민주

당) 의원은 8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을 결부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최근 광주시 일각에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을 패키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무안공항과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통합 문제

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일 뿐 군 공항 이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란을 부추기거나 정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남도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군 공항 이전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이정환(광산 5)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된 뒤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은 정부

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논의가 시작돼 2007년 국토부 방침으로 이전·통합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광주시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다.

민선 7기 출범 직후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조건 없는 광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회와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이 시장도 시민 의견 수렴 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IOPE RETINOL EXPERT 0.1%

2weeks  
고함양 고순도 레티놀 분기질  
밤자 주름 2주만에 개선  
IOPE LAB

## 슈퍼레티놀

###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인 40~50세 성인 여성 48명 (대상 2019.09.16~10.17 지양) 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